

안전 · 품질 · 환경 3박자의 완벽한 하모니

- 동아오츠카(주)칠서공장 -



▲ 허진 공장장

화 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들판, 그곳에서 바쁜 손을 움직이는 아낙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1년내내 힘든 일 마다 않고 노력해 온 그들의 값진 땀방울처럼 우리내 현장의 값진 땀방울을 찾아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동아오츠카(주)칠서공장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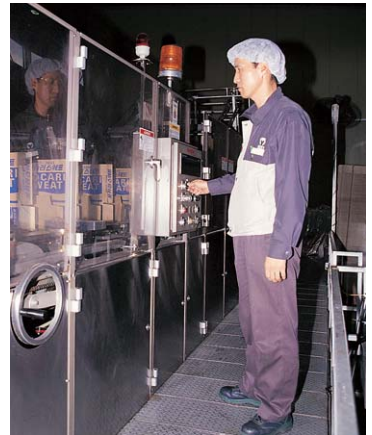
동아오츠카(주)는 1979년 동아제약(주)식품사업부에서 분리되어 식품회사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안양공장에 이어 1980년 청주에 제2공장을, 1996년 경남 칠서공단에 제3공장을 준공하여 포카리 스웨트, 화이브 미니, 오란씨, 데미소다 등을 생산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청량음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오고 있는 국내 유수의 음료업체이다.

■ 규정 준수에서 비롯된 무재해 5배

동아오츠카(주)칠서공장은 설립 2년만인 1998년에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난 8월 10일에는 무재해 5배를 달성한바 있는 안전 · 품질 · 환경 3박자를 구가 갖춘 곳이다.

이곳은 철저한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최상의 품질이 나온다 하여 그 어느 곳보다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다.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는 허진 공장장은 비록 규정을 지키거나 안전보호구, 안전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을 함에 있어 다소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그러한 방심과 습관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원칙에 맞게,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리자들은 근로자에게 원칙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은 받은 교육 그대로를 업무에 적용시킬 때 무재해 사업장의 구현이 가능하며 나와 가정, 회사와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재해사고의 실질적인 시나리오 훈련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를 적용·유추해내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또한, 위험한 작업이나 대부분의 공정들을 자동화하여 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공정은 격리하여 Computer Monitoring System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소음으로 인한 질병을 최소화하고 있다.

■ 쾌적한 작업환경은 단연 으뜸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을 들어서면 ‘참 이쁘다, 일터라기보다는 쉼터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장 작업환경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물론 음료를 생산하는 식품 회사라는 특성도 있지만 공장내·외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 칠서공장 식구들의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식당 옆에 설치된 분수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업무 중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칠서공장

고등학교 시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배웠다.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더불어 하는 것이리라. 사람 인(人) 역시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였듯이 칠서공장은 직원들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사내 서클활동을 활성화시켰고, 이로 인해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낚시, 축구, 산악회 등 각 개인의 적성에 맞는 서클을 선정하여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 항상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안전관리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재해 5배 달성을 이룩한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재해 20배를 위해 장기적으로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에 공정별로 업무에 맞는 안전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분사 차원에서 동아오츠카(주) 업무에 맞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는 추후 각 공장 및 영업소 모든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전의 시작은 나 자신인 것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이기동 안전관리자의 마음처럼 공장 식구 개개인이 안전의 소중함을 알고 원칙을 중시하여 업무에 임할 때 칠서공장만의 안전이 아닌 우리 사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 파란불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호연 기자〉

